

자기효능기대향상을 통한 저학년 학습자의 영어학습동기부여 연구 :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 Study on How to Improve Learning Motivation for First-grade
Primary Students Through Self-efficacy Belief Improvement

조 은 지*

< 국문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조기교육이 저학년 영어수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영어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저학년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영어학습참여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영어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저학년 영어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먼저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조기교육경험과 영어수업참여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관찰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약되고 쉬운 난이도의 저학년용 영어학습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3차시에 걸쳐 적용하였고 그 적용 결과를 토대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시행되는 영어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영어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학습자에게 쉬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도하자 이들의 영어자기효능기대가 향상되었고 이는 적극적인 영어수업참여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저학년 영어교육과정이 마련된다면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영어 조기교육, 자기효능감, 영어학습 동기부여, 초등영어 교육과정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조기교육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유아기때는 영어로 된 비디오 및 오디오 매체를,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영어 유치원을, 그 후에는 영어 학원 및 영어학습지를, 혹은 조기유학을 아이들에게 권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이제 영어는 요람에서부터 시작하는 필수적인 교육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공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이루어지며, 이 시기부터 영어교육을 접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동등하게 영어학습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조기교육이 영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으로 보고 있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전예화, 2003) 모든 과정이 끝난 결과로서의 영어 능력이 아닌, 영어를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영어수업에서 조기교육은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양한 영어 학습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인 초등 저학년 교실에서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나 참여, 동기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경순, 2003).

어떤 분야에서 선행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라고 본다면(Bandura, 1977)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하는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선행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쉬우며 반대로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 불균형 혹은 교육의 다른 출발점에 선 아이들에게는 선행학습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영어학습전략 및 영어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일깨워 주어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기효능기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과정은 이러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첫째,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인다. 이는 비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며, 앞서 말한 영어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에 벅찬 분량을 제시하게 된다.

둘째,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의 일부 시수를 활용하며 그 시수 또한 매우 적다. 때문에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이처럼 짧은 시간동안 배운 것을 대답이나 행동을 통해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같은 시간동안 배웠음에도 쉽게 대답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조기교

육 그룹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은 자신의 영어학습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보충지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교과보다 성취도의 차이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저학년 영어시간은 창의적재량활동의 일부이므로 교과와 달리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매 수업 학습목표의 성취 여부는 평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수행평가나 학력평가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이나 교사 개인의 영어교육 과정운영에서 특별히 평가나 보충지도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교사가 영어성취도의 차이를 인지만 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영어성취도가 낮게 보이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기효능감을 심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한 채 오직 수업장면에서의 성패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수업의 문제점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기효능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학습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수업 내용 및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영어에 대한 자기효능기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eliefs) 혹은 자기효능기대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이 추구하려고 선택하는 행위의 과정, 노력의 정도, 실패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 인내하는 기간,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 사고양태의 자기부정 또는 자기긍정 여부,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처하면서 받는 긴장과 압박감의 정도, 그리고 실현하는 성취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

즉 사람들은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는 데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근거하여 행위를 진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령 아동들이 낮은 영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였다면 이 아동은 앞으로 영어를 잘 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낮게 지각하는 사람보다 더욱 노력하고 성취도가 높으며 과제에 대한 끈기가 있다. 인지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에 있는 사상을 보다 잘 통제하여 불확실성을 덜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확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지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공포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김영채 역, 1995)

높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다음의 표를 보면 자기효능감이 학습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알 수 있다(변영계 역, 1995).

<표 1> 자기효능감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기간	높은 자기효능감	낮은 자기효능감
단기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이 닥칠 때 노력이 증가하며 이미 획득된 기술을 강화하는 노력과 주의가 집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이 닥칠 때 노력이 감소하며 일을 포기하고 갈등의 정도가 증가됨.
장기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경험과 행동을 포함하여 자기발전을 보조. • 개인은 일에 대해 즐거움을 느낌. • 실패의 원인을 능력의 부족보다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함. • 도전에 대해 흥미를 갖고 목표에 매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의 수행 중 곤란함을 당하면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함. • 스트레스를 받으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 열등의식을 갖게 됨.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어떻게 형성될까? Badura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정보를 얻는 네 가지의 주요한 원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김영채 역, 1995).

- 가.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직접적 완성경험
- 나. 다른 사람의 성취에 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대리적 경험
- 다. 언어적 설득(다른 사람이 누구는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함)
- 라. 생리적 상태(학습자가 현재의 관계에 참여할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내적 감정)

2. 직접적 완성 경험

직접적 완성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은 어떤 과제에서 학습자 자신의 이전 성공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천이다(Bandura, 1977).

완성경험, 즉 성공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예에 대하여 Marcy Drison(2005)의 쓴 다음 글을 보면 학습자에게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필자는 학생들이 다음 단원으로 진도를 계속 나가기 전에 단원퀴즈를 완성하도록 과목을 구조화 하였다. 그들은 각 퀴즈에 A를 받기 위해서 퀴즈시험마다 세 번까지 칠 수 있거나 최하 C학점까지는 인정 받을 수 있다. Bill이라는 학생도 퀴즈시험을 치렀는데 B를 받았다. 필자는 Bill에게 “Bill, A를 받도록 퀴즈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는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A’를 받을 학생이 못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어느 날, 다른 학생의 퀴즈시험을 감독하고 있는데, Bill이 와서 자신의 시험 답안지 채점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 문항에서 맞는 답안이 잘못 채점되어 있었다. 이 문항을 바로 다시 채점해서 그의 학점은 A로 올랐다. 필자는 그에게, “Bill, 너는 결국 ‘A’를 받는 학생이 되었어.”라고 지적하였다. 그 후부터 Bill은 퀴즈시험에서 ‘A’를 받지 못하면 거의 재시험을 치렀고, 대체로 그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 수행하였다.

3. 자기효능감을 위한 프로그램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 (변영계 역, 2005). 첫째, 하위목표의 사용이다. 처음부터 겉으로 보기에 복잡하고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하위목표와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문제해결 기술을 거의 가지지 못한 아동들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다. 둘째, 숙달되는 데 필요한 다른 기술들을 모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적극적인 숙달 경험 즉, 성공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직접적 완성경험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 넷째 개인의 효능감을 향상시키거나 확실히 해 주는 긍정적인 유인물을 사용한다.

이를 저학년 영어수업에 적용하여 첫째, 수업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하위목표로 제시하고 둘째, 직접적인 완성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조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숙달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강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실험 수업을 계획해 보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절차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서귀포시에 위치한 전체 12개 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1학년 17명이고 1학년은 2개 학급이 있었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매주 1시간씩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통하여 영어를 접해 왔다. 영어수업은 원어민과 담임교사가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지도하였으며 지도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간단한 대화(인사하기, 이름 말하기, 날씨 말하기 등)와 어휘(신체, 기분, 악기, 직업)를 게임이나 역할놀이 등 활동중심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12월까지 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담임교사는 모든 학생의 영어수업태도를 관찰하여 학생마다 영어에 대한 흥미도나 자신감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해왔다. 그리고 이들의 영어 조기교육 경험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아동들에게도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 3가지 조사결과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가. 아는 만큼 대답하는 아이들(수업 참여도와 조기교육의 관계)

12월에 실시한 조기교육경험 조사결과를 보면, 17명의 아이들 중 영어조기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11명이었다. 어떠한 영어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6명이었는데 이들 중 3명은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3어린이는 수업시간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평균 4세 전후로 조기교육을 받아왔고 그 내용은 영어 비디오, 어린이집 수업, 영어 과외, 학원수업, 학습지 방문교사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형태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학원수업을 통한 영어조기교육이었다.

교사는 아이들의 조기교육경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아이들의 영어수업 참여도를 관찰하여 기록해왔다. 그리고 영어수업에 가장 잘 참여하는 아이들을 A그룹으로, 중간정도의 참여도를 보인 아이들은 B그룹으로, 가장 참여가 저조한 아이들을 C그룹으로 분류하였다. A그룹은 총 7명이며 이들의 성취수준은 다음과 같다.

- (1) 교사가 제시한 그림을 보고 바로 반응하여 알맞은 영어단어를 말할 수 있다.
- (2) 간단한 대화를 듣고 비교적 빨리 외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3) 영어 발음, 억양이 매우 정확하다.

(4) 알파벳 순서와 이름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며 비슷한 모양으로 쓸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A그룹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수준의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영어수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대단하여 때로는 교사가 발문을 하기도 전에 대답을 하거나, 퀴즈를 내었을 때 자신의 차례가 아님에도 정답을 말하는 등 수업흐름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원어민 교사는 A그룹의 성취도를 전체의 성취도로 착각하여 수업내용을 더욱 어렵게 구성하거나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수업을 끝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인 C그룹 4명의 성취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어와 발음이 비슷한 영어단어만을 확실히 외울 수 있다. (예: 바나나, 피아노 등)

(2) 3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영어문장을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영어 발음이 부정확하다.

(4) 알파벳 순서와 이름을 모른다.

이들은 영어수업 중 단어 익히기, 말하기 연습, 퀴즈 등의 활동에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영어게임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주로 게임 자체에 흥미가 있을 뿐 게임 안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면 다시 소극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그림이나 상황을 보고 영어단어를 떠올리는 활동에서는 교사와 눈을 맞추지 못하거나 비록 열중한다 해도 이미 A그룹의 아이들이 대답을 해버려서 영어단어를 떠올릴 시간조차 갖지 못하였다.

각 그룹과 영어조기교육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A그룹 7명의 아이들은 조사결과 모두 영어조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아이들의 조기교육 총 시간은 평균 323시간, 처음 조기교육을 받은 시기는 평균 4.2세였다. B그룹은 6명 중 3명이 조기교육을 받았고 이들의 조기교육 총 시간은 평균 311시간, 처음 조기교육을 받은 시기는 평균 4.6세였다. C그룹은 4명 중 1명이 조기교육을 받았으며 이 어린이의 조기교육총시간은 120시간, 시작 시기는 7세였다. 모든 학생이 조기교육을 받았던 A그룹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조기교육을 받은 학생이 가장 적은 C그룹이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이로써 A그룹과 C그룹의 다른 참여도와 조기교육과의 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나. 이는 만큼 당당한 아이들(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수업참여도의 관계)

설문지를 통해 아이들의 영어 흥미도와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영어 흥미도 및 자신감 조사 결과

질문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영어가 좋다.	12	6	0	1
2. 나는 영어가 쉽다.	14	3	0	0
3. 나는 영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7	8	2	0

대부분의 아이들이 1번 질문에서 영어를 좋아한다고 대답하였고 C그룹 4명의 아이들도 모두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2번 질문에서 C그룹의 2명이 '매우 그렇다'를, 다른 2명이 '조금 그렇다'를 선택하였고 3번 질문에서는 2명이 '조금 그렇다'를, 다른 2명이 '조금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였다.

C그룹의 아이들은 영어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모두 영어 수업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 이는 영어수업이 다른 교과수업과 달리 활동위주의 놀이나 게임을 중심으로 진행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영어수업을 좋아하는 동시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게 표현했는데 C그룹의 아이들은 영어수업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영어 시간의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C그룹 아이들의 영어자신감이 매우 낮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의 아이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적은 조기교육경험과 낮은 영어수업참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자기효능감,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설계

이 연구의 목표는 아이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교육 과정의 높은 수준, 체계적이지 않은 내용구조, 부족한 시수 등)을 개선하여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쉽게 배우고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의 주제를 여러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간은 1주일로 설정하고 총 3차시의 수업을 기획하였다. 수업 주제는 알파벳 Aa, Bb, Cc, Dd 8글자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가장 낯설어 하는 부분이 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구목표와 다소 반대의 방향으로 들리는 주제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한다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비로소 배우는 문자를 벌써 도입한다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장 낯선 것을 익혔을 때 얻게 되는 자신감은 더욱 크다. 아이들은 자신이 영어(비록 알파벳 뿐이지만)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영어에 대해 더욱 친숙하게 느낀다. 더불어 요즘처럼 영어 글자를 쉽게 접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알파벳을 식별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또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집약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여 모든 아이들의 수업목표달성을 이끌기 위함이다. 알파벳 8개의 소리와 모양을 식별하고 대문자와 소문자의 관계를 아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인데, 이는 단순명료하고 그 범위도 넓지 않아 여러 개의 단어들로 혼란스러워 했던 아이들에게는 쉬운 주제로 다가갈 수 있다.

셋째, A그룹 학생들의 방해줄이기 위함이다. 앞서 말했듯 A그룹 학생들은 자신감이 지나쳐 자신에게 발표 기회가 없음에도 대답을 해버려서 수업의 흐름을 끊거나 다른 그룹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알파벳은 A그룹의 학생들 중 일부에게는 아직 낯선 영역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방해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한 교수학습과정에서 이들의 방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발표 순서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였다.

3. 지도자료 및 지도의 실제

각 차시의 수업목표 및 활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 1차시 활동의 개요

차시	1/3
학습 목표	알파벳 Aa, Bb, Cc, Dd를 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다.
활동 모습	<p><알파벳 Aa, Bb, Cc, Dd 이름 알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각 알파벳 8글자를 칠판에 적는다. 2. 칠판에 적힌 각 알파벳 모양의 특징을 학생들에게 묻는다. T: 이 글자의 모양은 어떤가요? S: 두 개의 막대기가 비스듬히 서 있고 가운데 선이 그어진 것 같아요. 3. 교사는 각 알파벳의 이름과 대문자, 소문자의 관계(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를 알려주고 알파벳의 이름을 반복하여 말하도록 한다. 4. 교사는 학생들에게 칠판의 알파벳을 가리키며 이름을 말하여 보도록 한다. 5. 교사가 알파벳을 말하면 학생들은 알맞은 알파벳 카드를 들어올린다. T: 큰 A! S: (대문자 A를 들어 올린다.) 6. 교사는 두 개의 알파벳을 말하고 학생은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들어올린다. T: A가족들! S: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들어올린다.) 7. 짝끼리 번갈아 문제를 내고 카드 들어올리기 게임을 한다. S1: 배가 나왔는데 허리띠를 매고 있는 것! S2: (대문자 B를 들어올린다.) S2: 작은 d! S1: (소문자 d를 들어올린다.) 8. 모듬끼리 문제내기 게임을 한다.

<표 4> 2차시 활동의 개요

차시	2/3
학습 목표	알파벳 Aa, Bb, Cc, Dd 이름을 듣고 알맞은 알파벳을 찾을 수 있다.
활동 모습	<p><알파벳 트위스터 게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각 알파벳 8글자를 칠판에 적고 알파벳 이름을 상기시킨다. 2. 지난 시간에 했던 알파벳 들어올리기 게임을 실시한다. T: A가족들! S: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들어올린다.) 3. 교사는 각 알파벳이 적힌 카드를 바닥에 여러 장 깔아 놓는다. 4. 각 모듬의 대표 어린이가 나와서 교사가 말하는 알파벳 카드를 손이나 발을 이용하여 짚는다. T: 큰 A! S: (대문자 A를 손이나 발로 짚는다.) 5. 학생이 교사가 말하는 알파벳을 잘못 짚거나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 탈락한다. 6.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의 모듬이 1점을 얻는다. 7. 다른 모듬대표가 나오면 게임을 다시 진행한다.

<표 5> 3차시 활동의 개요

차시	3/3
학습 목표	알파벳Aa, Bb, Cc, Dd를 바른 필순으로 쓸 수 있다.
활동 모습	<p><알파벳 쓰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각 알파벳 8글자를 칠판에 적고 알파벳 이름을 상기시킨다. 2. 지난 시간에 했던 알파벳 들어올리기 게임을 실시한다. T: A가족들! S: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들어올린다.) 3. 교사는 알파벳의 필순을 지도한다. 4. 학생들은 알파벳 학습지에 알맞은 필순으로 각 알파벳을 적는다. <p><알파벳 골든벨 게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교사가 알파벳을 말하면 학생들은 각자의 화이트보드에 알맞은 알파벳을 쓴다. 7. 반복하여 알파벳 골든벨 게임을 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활동 중에는 아동들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활동 후에는 아동들에게 설문지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아동들의 영어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조사하였다. 특히 영어수업참여도가 낮았던 C그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조사와 면담조사, 수업참여도 관찰 결과를 비교하여 아동응답의 진실성을 검증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가. 수업 참여도

C그룹 아동들의 활동 참여도를 관찰하면서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발표 횟수를 세어보았다. 이들은 총 3차시의 수업 중 발표 위주인 1,3차시의 수업에서 평균 3.4회 발표하였다. 가장 많이 발표한 아동은 7회였으며 가장 적게 발표한 학생은 2회였다. 이는 그동안의 영어수업시간에 거의 발표를 하지 않던 모습에 비하면 많이 향상된 참여태도이다. A그룹의 아동들의 발표 횟수 평균은 5.5회이었는데 이전의 영어수업시간의 발표 횟수보다 떨어지는 결과였다. 이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발표기회를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B그룹의 발표횟수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조금 낮게 나왔는데 평균 3.7회였다.

나. 설문조사 결과

C그룹 학생들의 설문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설문조사 결과

질문				
1. 나는 Aa, Bb, Cc, Dd를 잘 안다.	매우 그렇다 3	조금 그렇다 1		
2. Aa, Bb, Cc, Dd배우기 활동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았나요?	카드 들기 0	트위스터 게임 4	글자 쓰기 0	
3. 위 2번 질문에서 고른 활동이 좋은 이유를 쓰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해서 재밌었다. • 친구의 몸짓이 재미있고 짚는 것도 재밌었다. •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고 영어도 잘 익힐 것 같아서이다. • 쉽고 재미있어서이다. 			

C그룹의 학생들은 대부분 Aa, Bb, Cc, Dd를 잘 알 수 있다고 대답했고 또 게임을 통해 익힌 활동을 좋아했다. 적극적으로 변한 참여태도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 면담 결과

C그룹 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주제의 난이도, 수업에 대한 흥미, 자신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수업주제가 어려웠냐는 질문에는 모든 학생이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쉽게 외울 수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어서”등 자신의 성취여부를 기준으로 수업의 난이도를 표현하였다. 수업이 재미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모두 “매우 재미있었다”로 대답하였고 가장 재미있던 활동으로는 “트위스터 게임”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설문지의 대답과 같았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영어가 쉽기 때문이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 “영어가 재미있어서 잘 할 것 같다”등으로 대답하였다. 다소 불명확하게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1학년 학생임을 감안하여 명확한 표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2. 논의

참여도조사, 설문지, 면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기교육경험이 없고 영어수업참여도가

낮았던 학생들은 3차시의 실험을 통해 수업참여도와 자신의 영어실력에 대한 평가가 향상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업이 개선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영어수업의 문제점과 실험 전, 후의 아이들의 태도변화를 종합하여 해석을 내려 본다.

가. 공교육의 본기능 회복

저학년 영어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수준이 너무 상향되어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하였다. 현재 학교에서 제시하는 저학년 영어교육과정은 3, 4학년의 교육과정을 가져다가 급하게 사용하거나 아동들의 수준에 대한 신중한 고민 없이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영어를 매우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요소이다. 또한 영어수업에서 조기교육이나 사교육의 영향을 오히려 극대화 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어수업의 난이도가 높으므로 조기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가게 되고 조기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영어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기교육 혹은 선행학습을 아이들에게 시키게 된다. 이는 영어수업만이 다른 교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교육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뿐더러 정부에서 표방하는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방향도 아니므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공교육의 잘못된 부분이다.

나. 영어 교육과정 난이도

영어수업의 난이도를 낮추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지도하면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게 되므로 자기효능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지도 내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였더니 C그룹의 학생들이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의 자기효능기대를 높여주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생기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영어 학습 성취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기 보다는 쉬운 내용을 지도하여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교육은 정규과목이 아닌 창의적체험활동의 일부이며, 공식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시기는 3학년부대이므로 저학년 학생들의 영어교육과정 난이도를 3학년 수준

보다 낮추는 것은 결코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완충지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영어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3학년이 되어서 수월하게 영어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영어 학습 동기측면에서 볼 때 더욱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받은 경험, 학교영어수업시간 참여도, 영어자기효능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영어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개발, 적용해 보았다. 연구 결과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저학년 영어교육과정의 높은 난이도와 적은 시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자기효능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영어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저학년 영어교육과정의 내용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공식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시기는 3학년부터이므로 저학년 영어교육과정을 3학년 영어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일종의 완충지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영어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도 3학년이 되어서 수월하게 영어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성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쉬운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지도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자기효능기대가 높아지면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생기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영어 학습 성취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교사는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반응을 모든 아이들의 반응으로 착각하지 않고 수업에 소외되는 아이가 없는지 살펴본다.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빠르게 대답할 수 있다. 때로 교사는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을 전체의 반응으로 착각하여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교사는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곳곳히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을 반복하여 천천히 지도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짧은 시간동안 적용한 연구이므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아이들의 태도 변화를 많이 이끌 수 없었다.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아이들의 영어자기효능기대감을 보다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쉬운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알파벳 몇 글자의 학습만을 수업주제로 정했는데 이는 시간적 제약과 더불어 매우 한정적인 주제였다. 보다 다양하고 쉬운 내용을 개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 조기교육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수업전략을 소개하지 못했다. 연구자는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발표 횟수를 제한하거나 성급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전략만을 소개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수업전략이나 이들을 위한 보충지도방법을 개발, 적용하였다면 보다 성공적인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가진 연구이지만 이 연구가 주목한 학교영어교육의 문제가 개선되어 저학년 영어학습자들, 특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영어자기효능기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영어교육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참 고 문 헌

- 변영계(2005).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국교육심리학회(2009).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부경순(2003). 조기영어교육이 초등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3학년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9(2). 143-166.
- 전예화(2003). 영어교육 어릴수록 효과적인가?. **한국유아교육학회**, 23(3). 285-305.
- Marcy Driscoll(2007).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심리학[Psychology of Learning for Instruction]**. (양용철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2005에 출판).
- Reed, Stephen K(1995). **인지심리학 : 이론과 적용[Cognition theory and applications]**. (김영채 역). 서울: 박영사. (원전은 1992에 출판).
- Bandura, Albert(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Jersey: Prentice Hall.

ABSTRACT

A Study on How to Improve Learning Motivation for First-grade primary students through Self-efficacy Belief improvement

Jo, Eun-ji(Pyoseon Elementary Schoo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ome effects of early English education on first-grade classroom of primary school and to suggest a kind of English curriculum which can improve Self-efficacy belief for low-grad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who have less experience of early English education have lower Self-efficacy belief and participation on English class activities. The result of an application of simple and repeated curriculum on this students, they gained confidence and were encouraged participation on English class activities. Finally, the study suggested ways to improve learning motivation of students who have less experience of early English education through developing systematic English curriculum.

Key words : early English education, Self-efficacy belief, improving learning motivation, primary school English curriculum